

'아베의 일본' 우향우 본격화

일본 집권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25일 나가사와 히데나오(中川秀直·62) 정조회장을 간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 3역 인사를 단행했다.

정조회장에는 나가사와 쇼이치(中川昭一·53) 농림수산상, 총무회장은 니와 유야(丹羽雄哉·62) 전 후생상이 각각 기용됐다.

아베 총재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공식 발족시킨다.

아베 총재와 같은 모리(森)파 소속으로 9선의 나가사와 간사장은 게이 오대를 졸업한 신문기자 출신이다. 모리 내각에서 관광장관과 과학기술청장관을 지냈으며 고이즈미(小泉)

아베 '위안부 망언' 나가사와 정조회장 임명 당 3역 모두 '강경우파'로... 친정체제 갖춰

정권에서 국회대책위원장과 정조회장을 역임한 실력자. 아베 총재의 후견인과 같은 존재이다.

그는 간사장으로서 자민당의 명운이 걸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대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나가사와 간사장은 과거 관계를 가진 20대 여성에게 경찰 정보를 유출했었으며, 이 일로 구구단체의 간부가 연루됐다고 한 주장이 폭로된 뒤 지난 2000년 10월26일 관광장관에서

불명에 퇴진하는 추문들에 휘말린 일이 있었다.

나가사와 쇼이치 정조회장은 일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망언'을 하고 각료로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거듭 참배했다. 또 여야의원들이 참여한 '남치구출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아베 총재와 색깔이 흡사한 대북(對北)강경 우파인 셈으로 그의 기용으로 자민당의 정책이 더욱 오른쪽으

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 출신인 니와 총무회장은 당내 3대 파벌인 니와(丹羽)·고가(古賀)파 뒤편에 기용됐다.

아베 총재는 이날 오후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과 당수회담을 열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가결과 저출산 대책 추진, 아시아외교 중시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정책에 합의하고 '연립정권 지속'을 확인한다. 이어 26일 총리로 지명받은 뒤 '아베 내각'을 발족한다.

한편 최대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오자와 이치로(對北)강경 우파인 셈으로 그의 기용으로 지도부를 발족한다. /도쿄=연합뉴스

구소련공산당 전철 뺏을라!

中 공산당 구소련 붕괴 15주년 맞아 학습 운동... "부패적결이 亡黨 막아"

중국공산당이 15년전 붕괴된 구 소련 공산당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 전철을 밟지 말자는 학습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소련공산당 정권 해체 15주년을 맞아 '거안위사(居安思危·편안한 처지에서도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다)-소련공산당 망당(亡黨)의 역사교훈'이라는 제목의 교육용 동영상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5일 전했다.

중앙기율검사위, 사회과학원 등이 공동 제작한 이 비디오 테이프는 각 40분짜리 8편으로 소련공산당의 흥망성쇠, 기본이론 및 지도방침, 이념공작, 당풍, 특권계층, 조직노선, 지도부, 노선변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소련공산당의 붕괴가 사상적 해이와 비리, 부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소련 공산당이 집권 74년 만에 붕괴되고 소련 해체 때까지 이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산당의 이상적 신념을 견지해나가고 사상도덕 수양의 계기로 삼는 것과 동시에 청렴한 당풍을 조성하고 위험방지 능력을 높인다"는 게 이 동영상 제작의 취지.

공산당은 현(縣)급 이상의 당 간부들에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모두 시청토록 하고 부패 척결을 통해 망당을 막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2건의 비리 사건이 발생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도 전 당원들이 이를 시청하고 학습해야 했다. 중국은 1991년 8월 사회주의권의 중주국이었던 소련이 공산당 붕괴에 이어 국가해체에 이르자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특히 소련 연방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근래에도 장미혁명(그루지아), 오렌지혁명(우크라이나), 레몬혁명(키르기스스탄) 등 민주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자 이런 색깔혁명이 득립을 노리는 중국 변방지구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해왔다. /홍콩=연합뉴스

"빈 라덴 사망설, 서방 정보기관 작품?"

9·11 미국 테러의 배후조종자로 알려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설이 다스리 제기된 것은 그의 소재와 건강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서방 정보기관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 라덴의 추종자들이 2년 가까이 드러내지 않은 그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집트 알-아흐람 정치전략연구소의 테러문제 전문가 디아 라쉬완 박사는 "서방 정보기관이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동영상 공개 유도 소재-건강 단서 기대 등은 빈 라덴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즉, 빈 라덴이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그의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하게 의도된 서방 정보기관의 '기밀 누설'이라는 것이다.

라쉬완 박사는 "그들은 빈 라덴의 정확한 소재에 관한 작은 단서라도 포착할 목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런던=AP=연합뉴스



복원된 1,300t급 정화 제독 함선 600년 전인 명나라 시기 23차례의 남해원정을 떠나 최근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정화(鄭和) 제독의 함선이 복원됐다. 24일 난징(南京)의 명나라 황실조선소 유적지 공원에 서 정화 제독 함대의 중심선박을 그대로 복원한 보선(寶船) 낙성식이 열렸다. 복원된 보선은 길이 63.3m, 폭 13.8m, 배수량 1천300t에 한꺼번에 400명을 태울 수 있는 '중간급' 범선이다. /홍콩=연합뉴스

'망명자의 천국' 스위스, 인도적 난민 봉쇄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강화된 새로운 난민법과 이민법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스위스내셔널뱅크(중앙은행)의 노인연금 지원안은 부결시켰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난민법과 이민법은 26개 전 칸톤(州)에서 과반이 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67.8%와 68%의 압도적 지지를

각각 받았으며, 노인연금 지원안 도입은 58.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스위스내 우파적, 고립적 경향의 확산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각종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본부 소재해 있는 '중립국 스위스'의 평화적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투표에 참가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48만 명에 이르며, 투표율은 40% 안팎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터너 前CNN회장 내달말 남북한 방문

그레그 前대사 동행 南北정상 면담 추진

CNN 회장을 지낸 테드 터너(사진) 터너재단 회장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군대사 등과 함께 내달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남북한을 동시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특히 터너 회장과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정상 간접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터너 회장은 광복 60주년인 작년 8월에도 그레그 전 대사, 커튼 윌던 미 하원의원(공화당) 등과 함께 전용 기점으로 남북한을 동시 방문,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DMZ 지뢰 제거 및 자연생태 보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미국군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터너 회장과 그레그 전 대사가 지난 9월에 이어 올해에도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키로 했다"면서 "내달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항공기로 평양을 방문, 11월 1일까지 북한에 머문 뒤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泰 신공항 개항 강행... 쿠데타 이미지 불식 기대

태국 국정을 장악한 군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방콕 국제 신공항 개항을 강행, 쿠데타로 더럽혀진 국가 이미지를 불식을 기대하고 있다.

태국 교통부와 '타일랜드 공항공사'(AOT)는 25일 "아시아 최대의 수완나품 국제 신공항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공식 개항한다"며 "그날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신공항은 예산초과와 정치 개입, 건설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개항이 미뤄져 탁신 차나왓 전 총리의 권력남용과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곳이다.

군부는 28일로 예정된 신공항 개항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쿠데타 탓으로 여길 공산이 크다고 보고,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콕=연합뉴스

아파트 LCD TV 광고 사업 !! 대리점 모집 TELSON MEDIA (주) 텔슨미디어

LCD 광고란?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 주거시장에 적합한 최초의 사업으로 독립적 경쟁력있는 사업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 주위시선을 집중시키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지털 솔루션 이런 LCD 광고 모니터 시대입니다.

전단지 무지개 광고는 가라! 이제는 "LCD 광고"입니다. 영업 사원 모집 경력, 신입 0명

- LCD 광고 모니터 사업
- 본사 AP, 교외, 관공서 LCD 설치수주
- 소지료 무점포 장업
- 본사 광고제작, 광고수주 대행
- 겸업 가능
- 마부 30분권리 (대리점 소유 LCD 합리리)
- 3000만원 창업비용으로 월 350만원 이상수익 (주부창업가능)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최대수익가능, 상담하세요!

(주)텔슨 미디어 ☎ (062) 374-3006

농산물품질관리사

초창기 자격증을 잡아라(3회)

2차 실기대비반 개강 **9월 30일**

수업시간 : 토 3시~7시, 일 2시~7시

- 전국최다 합격생 배출
- 전국 유일의 실기강의를 하는 학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의 유명 강사의 직강
- 1, 2회 합격생 전원 취업완료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옆 ☎ 236-2467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0월 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전공과 함께 실력있는 공부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난방이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필름 난방은 영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인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음향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주택관리사(보)

7주 최종 마무리 특강

강의기간	시간표(주말반)	수강대상
9월30일~11월19일	(토)14:00~20:00 (일)10:00~18:00	교육보험가입제직근로자(본국) -선착순 접수 34명 마감-

접수마감-9월28일(20:00) <전화 후 방문 접수>

현대직업전문학교 [1관]전남고교앞 ☎ 232-1088, 224-4560

두배빠른 공무원 합격시스템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법원/검찰직 법공무원 임용시험 비준/합격 비준/합격 비준/합격 비준/합격 비준

개강 ▶ 10월 29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